

유엔 " 인간활동 탓 지표면 20~40% 황폐화 ...
토지 복원 나서야 "

사회 현안 정리

유엔 “인간 활동 탓 지표면 20~40% 황폐화...토지 복원 나서야”



김정수 기자 +구독

등록 :2022-04-28 15:3

f t v d s c g

사막화방지협약 '지구 토지 전망' 보고서
9가지 '행성 한계' 중 4가지 이미 초과
“이대로 2050년 되면 남미 면적 더 황폐화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도 토지 복원 필요”



사회 많이 보는 기사

1. 실외 마스크 해제 말고 더 있다, 5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체계
2. 윤석열 “경찰 수사 잘할 것” 거리두기에... “한동훈에 기대”
3. ‘유웨이즈’ 유재석의 ‘굳 표정’이 말하러 한 것
4. 김창룡 “검찰, 경찰 수역량 의도적으로 깎아라...매우 유감”
5. ‘쓰던 습관 오래가네’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해제 첫날

- ❖ 사막화방지협약 ‘지구토지전망’ 보고서
- ❖ 9가지 ‘행성 한계’ 중 4가지 이미 초과
 - 인간활동으로 지표면의 20~40%가 황폐해져 지구가 인류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유지돼야 하는 9가지 ‘행성의 한계’ 가운데 4가지 항목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
- ❖ 초과한 한계선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사용변화, 질소,인 순환등
- ❖ 아직 넘어서지 않은 나머지 5가지 행성한계는 담수이용, 해양 산성화, 화학물질오염, 오존층 파괴, 대기 오염등
- ❖ 이대로 2050년 되면 남미 면적 더 황폐화
- ❖ 지구 온난화 막기 위해서도 토지 복원 필요

유엔의 경고!



2019년 5월 몽골 바가노르 사막화 지역에서 대한항공 신입 직원들이 델타항공 직원, 몽골 현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지구 토지 전망 보고서’를 내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토지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 유엔보고서는 ‘인간은 이미 지구 육지 면적의 **70%** 이상을 자연 상태에서 변형시켜 유례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지구온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의 토지 황폐화 추세가 이번 세기 동안 계속된다면 더 심각한 기후 교란으로 식량 공급 중단, 강제 이주 및 종의 멸종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이브라임 티아우 유엔사막화방지 협약 사무총장은 “우리는 오늘의 기후 위기, 내일의 생물 다양성 손실, 미래의 토지 황폐화를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우리 발 밑(땅)에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알아본 사막화 !



- 매일 잠실주경기장 면적의 **2000배**, 울릉도의 **2배**에 달하는 토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상태로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면, **1년** 동안 남한 면적의 **60%**에 달하는 토지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 그렇다면 사막화란 정확히 무엇일까? 사막화란 기후 변화 또는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되거나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사막 환경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사막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 사막화는 토양에서 동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능력이 감퇴 또는 중단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후적 요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대표적이며, 인위적 요인은 과도한 방목, 경작, 벌채등을 들 수 있다.
- 기후적 요인보다는 인간의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의 균형을 깨뜨려 발생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와 설비들을 자연의 허용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 ‘사헬 그린벨트 계획’, ‘그린어스 계획’ 등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막화 방지에 힘쓰고 있다.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 ‘사헬 그린벨트 계획’? 사마하라 사막의 남쪽 끝의 사헬 지방은,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다.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 지역에 사막화를 저지하고 녹화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 그린어스 계획? 이집트에서 일본 사단법인 사막 개발 협회가 건조지대에서의 보수제를 이용하여 식생 재배를 시도하여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화 계획이다.
- 사막화 과정은 대기, 식생, 물, 지형등의 지표 부근의 다양한 형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 관련되는 여러 과학에 의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토목공학적 관점으로 찾아본 나의 해법

- 식량과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경작지와 설비가 자연의 허용치를 넘어서며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 그렇다고 인간의 모든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계획적인 설비 계획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건축, 토목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며 숙제이다.
- 인간의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태어난 공학이 바로 토목 공학이라고 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공학이 아닌 최소한의 자연 파괴를 전제로, 최대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자 노력하는 학문으로 나아가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더 나아가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 까지 또한 구조물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예상해야 하고, 건설이 끝난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
- 지금의 현안인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욕심보다는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토목공학자가 되어 보고 싶다.